

종합

# 鄭-李 ‘금산분리·교육정책’ 충돌

〈동영〉 〈명박〉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18일 벌인 첫 정책 대결에서는 두 후보 간 격렬한 입장 차가 드러났다.

두 후보는 이날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신문 지식포럼에 참석, 각각 기조 연설을 했다. 이 후보의 연설 제목은 ‘세계 일류국가의 꿈과 한국 경제’. 정 후보의 제목은 ‘차별 없는 성장, 평화의 아시아 시대를 향하여’였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이 후보, 성장 못지 않게 분배를 고려하는 정 후보의 가치관이 각각 나타났다.

특히 정 후보는 이 후보의 경제관을 겨냥해 “약육강식의 괴도 눈물도 없는 ‘정글 자본주의’”라고 꼬집었고, 이 후보는 “경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역경 자세를 취했다.

◇정부 역할 = 이 후보는 정책의 중심을 민간과 시장에 두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정부가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민간을 활용하면 정부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일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부터 방만한 재정과 예산, 비효율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혁신하겠다고 작은 정부론을 편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시장실체 부분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교육혁명을 위해 고등 교육재정 중 대학에 들어가는 돈이 5조원인데 이를 두 배 이상 늘리겠다”며 “신기술산업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산 분리 정책 = 경제계의 최대 이슈인 금산(금융자본과 산업자

## ■ 매일경제 지식포럼 참석 기조 연설

### “금산분리 지켜야” 對 “이젠 손봐야” “평준화 해제 불가” 對 “상향 평준화”

본) 분리 원칙과 관련, 이 후보는 폐지, 정 후보는 존치를 각각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세계적으로 금산 분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영미권 국가들이고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예를 보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사전적·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세계적인 금융 강국인 영국과 미국이 금산 분리를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금산 분리 원칙의 완화는 특정 재벌을 편드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 = 이 후보는 연설 후 교육정책을 묻는 방정석 질

문에 대해 “고교평준화가 30년간 지속되면서 교육이 상장이 아니고 하향 평준화가 됐으며 교육질이 너무 떨어졌다”며 “하향평준화 정책으로는 더 이상 인재양성도 교육선진화도 어려우며 특성화와 상향평준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후보는 “중고등학생들의 죽음의 트라이앵글인 수능, 논술, 내신에서 해방시키겠다”며 “야당 후보의 교육정책은 고교 입시의 부활이고, 고교 평준화의 해체지만 제 교육정책은 야당후보가 갖고 있는 교육 양극화와 차별화된 정책이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어색한 조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18일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신문 주최 세계지식포럼 행사장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명박, 내부 악재 ‘골머리’

## 부시 면담 무산·‘차떼기당 복귀’ 등 잡음 잇따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지난 8월말 전당대회 이후 잇따르고 있는 내부 잡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선 직후 박근혜 전 대표측 인사들과의 불협화음을 가깝스로 정리하는가 싶더니 이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면담 무산, 당 사무처 인사 잡음에 이어 ‘차떼기당 복귀’ 논란에 휘말리는 등 ‘집안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최근 벌어진 내부 잡음의 공통점은 이 후보의 직접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비난의 화살이 이 후보로 향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른바 ‘차떼기’로 물의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준호 전 의원의 상임고문 임명

차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만 벌여받은 물론 당내 인사들의 비판은 일제히 이 후보로 쏟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공교롭게도 최 전 의원 등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한 지난 15일은 이 후보가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 ‘차떼기당’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고 강조한 날이어서 상황은 더 꼬였다.

이른바 ‘4강(強) 외교’ 행보도 이 후보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사태가 악화된 케이스다. 당초 이 후보는 대선후보로 확정되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을 순방하며 경제·자원의교를 펼친다고 밝혔으나 여론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부시 대통령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정상들과의 면담 성사 여부에 쏠렸고 이것이 무산

되자 비난의 도마위에 오른 것.

특히 면담을 추진한 미국측 인사와 보좌진들의 어설픈 일처리로 부시 대통령 면담이 무산된 것은 ‘골목 외교’라는 벌여준 비난의 빌미를 주기까지 했다.

이밖에도 전당대회 이후 주요 당직자 및 당 사무처 인사도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경선기간 박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이른바 ‘친박(親朴)계’ 인사들이 선거 관련 핵심요직에서 밀려나면서 ‘보복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처럼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자 당 안팎에서는 이 후보와 한나라당이 대선전의 ‘뒀’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자조와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이명박 한나라 대선후보 전국투어 22일 호남서 ‘스타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등 범여권 후보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호남과 충청권을 겨냥한 페달밟기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당초 오는 28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일주일 가량 앞당기고 호남권과 충청권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22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25일 전북, 26일

대전, 27일 충남, 28일 충북 등을 차례로 방문기로 했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내달 중순까지는 전국을 한바퀴 돌겠다는 계획이다.

호남과 충청을 초반 행선지로 잡은 것은 다분히 전략적이라는 게 당 안팎의 해석이다. 호남 출신 정 후보가 최근 지지를 20%대에 육박하며 추격에 나섰다 점을 감안, 호남민심 끌어안기에 나서려는 한편 대선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권에 대한 애정

도 동시에 과시하겠다는 것. 특히 호남에서는 중앙선대위 회의를 현지에서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선대위 발대식에 이 후보가 직접 참석하고, ‘2012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여수를 찾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필승결의대회도 기존 정치관에서 볼 수 없었던 ‘탈 여의도’ 실험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행사 명칭을 ‘국민성공 대장정’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목을 끄는 것은 ‘국민자전거 릴레이 전국대장정’ 첫 행사지만 광주지역 지지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전북으로 이동하면 전북지역 지지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는 식으로 전국을 순례한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동영 중심’ 뭉치는 민주신당

## ‘화합 최우선’ 손학규·이해찬 협조 분위기로

대통합민주신당이 대선후보 확정 후 정동영 후보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이다.

경선 과정에서 ‘반鄭(反鄭·반 정동영)’ 연대가 가시화되는 등 내부 갈등으로 인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됐지만 정 후보가 화합과 포용을 통한 내부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내부에서도 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

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 것. 적전분열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제대로 붙어보지도 못한 채 대권을 ‘헌납’할 수 있다는 상황인식 때문이다.

신당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정 후보 중심의 구심력을 확보한 것은 경쟁 후보였던 손학규 전 지사, 이해찬 전 총리의 경선 승복과 협조 모

드카 뒷심이 땀다는 지적이다.

손 전 지사는 경선과정의 대립과 반목을 뒤로 하고 정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17일 밤 경선 기간 도움을 줬던 의원들과 가진 만찬에서 “대선승리를 위해 정 후보와 신당에 헌신하자”면서 즉석에서 정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개성공단에

잘 다녀왔느냐. ‘정동영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이 전 총리 역시 “우리가 뽑은 대선 후보를 당선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등 캠프내 대다수 의원들도 이 같은 ‘원칙론’에 공감을 표하고 정 후보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당내 김근태계인 재야와 의원들로 이뤄진 ‘민평연’ 소속 의원들도 지난 16일 조찬 회동을 갖고 “당선된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권영길 후보 민생투어

### 노동자·농민과 ‘만민보’...오늘 순천시 출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19일 순천을 시작으로 노심(勞心)과 농심(農心)을 잡기위한 지역 민생투어에 들어간다. 지난달 15일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한달 이상 언론인터뷰와 조지결속, 행사참여 등에 주력해왔지만 그 효과에 한계를 느껴 민심의 바다로 직접 뛰어든다는 전략이다.

이번 민생투어 대상지는 전남과 전북, 경남이다. 호남지역은 농민 비율이 높는데 다른 지역보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감이 심해 공감대를 이끌어내기가 용이하고 경남지역은 공단이 많아 노동자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권 후보는 19일 오전 10시 민주노

동당 순천시당에서 ‘만민보’ 출발 기자회견을 갖고 황전면 등지에서 통일 쌀 벼베기와 가을걷이에 참가한 뒤 마을이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권 후보는 10여일간 호남지역을 순회한 뒤 경남지역 공단을 찾은 계획이다.

권 후보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처절한 시를 쓰는 기본으로 현장으로 간다. 민노당의 현장은 노동자, 농민, 빈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라며 민생투어 취지를 밝히고 “고은 시인이 ‘만민보’라는 연작시를 썼는데 저도 현장에서 노동자,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를 쓰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전액국비수강생모집

#### 컴퓨터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영세자영업자	기업사무자동화 인력양성과정	3개월	11월 1일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1월 5일
재직자 및 일반인	CAD	2개월	11월 1일
	MOS(Master)	2개월	11월 5일
	정보통신실비	2개월	11월 1일
	정보처리	2개월	매월 초
정보화기초1,2	5주	매월 초	

#### 부동산실무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11월 12일
	주택관리사	2개월	11월 12일

※ 교육대상 : ■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 일반인 및 대학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8개월 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 야간반, 주말반)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향시영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08년도 신분보장과 생활안정된 직업은 지금 준비가 좋습니다

# 7급 공무원

## 합격특강

# 11월 1일

중·야간반 합·합반 모 집

행정, 세무, 교정, 검찰, 교양, 소방, 기술, 사회

전통 46년! 실력있는 강사진, 높은 합격률 자랑, 수많은 원매님 입성!

www.mdgos.co.kr ☎ 222-4560

### 공무원 5만명 증원(2007년부터 2010년까지) =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 7급 공무원

## 개강 11월 1일

가정: 행정, 교양, 세무, 교정, 검찰, 사회, 교양, 소방, 농업, 토목, 건축, 컨설팅, 보건, 기술

공무원 이론반 2개월 20만원 (수업료+교재)

공무원 문제풀이 1개월 10만원 (수업료+교재)

2008년 1차 공무원 시험 대비

이론반(2개월 완성) 문제풀이(1개월 완성)

기술직 단속반 농업/토목/건축/소방/컨설팅/보건

### 한빛공무원학원

www.hanbitgosi.co.kr

광주 동부구 동부동 234-0234

#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스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지량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 모/집/대/상 ※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미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 교육비 :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 교육장소 : 동부경찰서 2층 무등고시학원  
★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순천 교육장소 매곡동 북부정류장 동성컴퓨터학원 2층  
문의 : (062)434-7857

### 매직&매직 아카데미

☎ (062)434-7857